

6. 석유가 고래를 춤추게 한다

고래의 위기와 그린피스의 등장

유전이 발견되고 고래는 목숨을 구했다

포경을 사양산업으로 만든 기술 발전

- 사회가 점점 더 풍요로워짐에 따라 고래를 대체할 수 있는 소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고 그 수요가 고래를 살렸다. 고래기름을 대안으로 식물성 기름을 사용하는 등 더 풍부하고, 저렴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대안을 찾았다.

에너지 전환은 어떻게 일어날까

- 에너지 전환은 에너지 밀도가 낮고 탄소 밀도가 높은 연료에서 에너지 밀도와 수소 밀도가 높은 연료 쪽으로 움직여 온 것이다. 석탄은 나무보다 에너지 밀도가 2배 높고, 석유는 액체 형태로 전환 가능한 천연가스와 마찬가지로 석탄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다.

<가스랜드>의 ‘불타는 물’ 사기극

- ‘불타는 물은’ 프래킹이 아니라 대자연의 산물(메탄 가스)이었다.

프래킹의 기후 정치학

- 천연가스는 석탄보다 깨끗하다. 천연가스는 석탄보다 17~40배나 적은 이산화황을 배출한다. 일산화황은 석탄이 배출하는 양과 비교하면 소량에 지나지 않고 수은은 거의 배출되지 않는다.
- 가스 누출 방지 설비, 관리 감독과 유지 보수 방식이 개선되어 메탄가스 오염 발생은 20% 이상 감소하고 있다.
- 셰일층을 고압의 물로 천연가스를 채굴하는 것과 산을 통째로 깎아 석탄을 채굴하는 것, 양자의 환경 피해 차이는 비교 불가능한 수준이다.

야생 물고기 대 양식 물고기

- 물고기 양식은 해양 생물과 야생 어류 보호에 필수적이다.
- 물고기 양식장을 바다에서 내륙으로 옮기는 것은 환경에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다. 양식장이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고, 물고기 양식에 쓰인 물을 정화하는 설비와 최대한 인접해 양식장을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. 버리는 물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많은 물을 재사용 할 수 있다는 뜻이다.
- 과학자들은 유전자 조작 기술을 통해 치명적인 조류독감을 박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.

계층과 정치에 좌우되는 에너지 전환

- 경제 성장과 더 좋은 식품, 조명, 에너지에 대한 수요 증가는 에너지의 생산과 전환을 이끄는 원동력이다. 하지만 정치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. 에너지 전환은 사람들이 그것을 원할 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. 그러므로 더 나은 대안을 택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는 일에서 대중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정치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는 실로 중요한 문제다.